

몽돌 해변 알작지

알작지는 작은 자갈들로 이루어진 해변이다. 오랜 세월 물의 힘으로 만들어진 알작지는 바다와 자갈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경치를 자랑한다. 돌이 많은 제주의 바다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명소이다.



내도1길 | 제주시 내도동 574-1 ~ 제주시 내도동 537(약 0.3km)

태우해안로 | 제주시 이호1동 575-4 ~ 제주시 내도동 1660(약 2km)

신산마을길 | 제주시 내도동 274-1 ~ 제주시 도평동 19-1(약 2km)

대통길 | 제주시 내도동 310-2 ~ 제주시 도평동 1355-1(약 1.4km)

논세길 | 제주시 내도동 703-1 ~ 제주시 도평동 1346-1(약 1.4km)

내도1길 | 알작지

도근천을 사이에 두고 외도마을 동쪽에는 **내도1길**이 지나는 내도마을이 있다. 내도는 도근천 안에 있다는 뜻으로 안도그내마을로 불리다가 내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내도는 바닷가의 독특한 해안이 유명하다. 알작지라고 부르는 이 해안은 일반적인 모래사장과는 달리 모가나지 않고 둥근 자갈로 이루어진 해안이다. 그래서 ‘마을 아래에 있는 자갈’이고 해서 제주어로 ‘알작지’라고 부른다.



알작지

해안에 쌓인 돌들은 한라산에서 부서진 바위들이 하천을 따라 물살에 흘러내려 오면서 쌓인 것이라고 한다. 도근천과 무수천이 한 곳에서 만나 바다로 향하는 길목인 내도 바닷가의 자연환경이 만든 독특한 볼거리이다. 알작지 해변은 바다와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치와 더불어 누군가 닦아놓은 듯 반질반질한 자갈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다. 모래가 있는 일반적인 해수욕장과는 달리 자갈 위를 걸을 때 바스락 거리는 감촉은 색다른 느낌을 준다. 그리고 바닷물과 자갈이 부딪쳐 만들어내는 소리는 가슴 속까지 시원하게 들린다. 돌이 많은 제주의 바다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명소여서 제주올레 17코스도 이곳을 지난다. 제주에서 알작지처럼 몽돌이 넓게 펼쳐진 해안은 추자도와 내도 두 곳 뿐이다. 그래서 제주시에서는 향토유형유산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다.

테우해안로 | 도리코지

내도 바닷가에서 동쪽으로 가다보면 **테우해안로**를 따라 이어진 곳에 바다로 쪽 뻗어나간 바위를 볼 수 있다. 도리코지라고 불리는 이곳은 다리처럼 생긴 바위가 바다로 뻗어나갔다는 뜻으로 불린 이름이다. 이 바위는 바닷물에 의해 오랫동안 침식되면서 만들어진 모양이라고 한다. 지금은 각 마을마다 포구가 잘 만들어져 쉽게 배를 대고 있지만 옛날에는 바닷가의 지형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내도 사람들은 도리코지를 자연포구로 삼았다고 한다. 자연 그대로를 삶에 이용할 줄 알았던 선조들의 지혜를 느낄 수 있다.



도리코지

신산마을길 / 대통길 / 논세길 | 하천을 따라 이어진 길

한라산과 중산간에서 시작되는 여러 하천들은 내도 인근에 이르러 하나로 만난다. 그래서 여러 길들이 하천을 따라 이어진다. 그 중 **신산마을길**은 원장천과 도근천 사이에 하천과 나란히 나 있는 길로 신산마을을 지나는 길이라는 의미이다. 신산마을은 신산^ㅁ르라고 부르던 언덕 일대에 생긴 마을이라는 뜻이다. 예전에는 김사(金寺)라는 절이 있어서 짐서^ㅁ르라고 불렸었다고 한다.

도근천과 어시천 사이로는 대통길이 지난다. **대통길**은 대통밭, 알동네로 부르던 마을을 지나는 길이라는 의미이다. 옛날에 굿을 할 때 대나무로 만든 큰 깃발을 꽂았는데, 그곳을 중심으로 마을이 생겨났다고 전한다. 어시천을 따라 서쪽에는 **논세길**이 나란히 이어져 있다. 이 주변을 예전부터 논세밭이라고 부르던 것을 반영한 이름이다.

여러 하천을 따라 흘러내려온 돌들이 알작지와 같은 독특한 해변을 만들었다. 저녁 무렵 알작지에서는 바다 너머로 지는 해와 더불어 들리는 파도소리가 운치있는 풍경을 보여 준다.